

마이크로프랜드 (147760)

FS Research

이병헌 연구원

honey3079@fsresearch.net

투자의견	Not Rated
목표주가	-
현재주가(04/19)	4,800원
상승여력	-

시가총액	519억원
총발행주식수	10,819,866주
60일 평균 거래량	주
52주 고	6,660원
52주 저	3,630원
외인지분율	1.7%
신용비율	1.4%
자본금	54억원
액면가	500원

주요주주	지분율
프로텍	41.76%
조병호 외 1인	8.79%

행사기간	미행사된 주식수
없음	

주요 자회사	지분율
없음	

FS리서치 텔레그램	FS리서치 홈페이지
	

하반기 기대되는 리바운드

어려웠던 시기를 보내고 정상 궤도로 진입하는 구간

동사는 2004년 설립된 MEMS(Micro Electronic Mechanical System) 기술을 기반으로 한 2D/3D MEMS 프로브 카드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프로브카드는 반도체 동작 검사를 위해 반도체 칩과 테스트 장비를 연결하는 장치이다. 프로브 카드에 장착어 있는 프로브 팁이 웨이퍼와 접촉하며 신호에 따라 불량 반도체 칩을 선별한다. MEMS 프로브 카드는 반도체 DRAM/NAND 웨이퍼 번인과 테스트에 쓰이는데 동사는 DRAM 웨이퍼 번인 S사 독점공급 중이며 NAND 프로브카드의 경우 코리아인스트루먼트에 이어 고객사 내 35%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 고객사 품질 이슈로 NAND 테스트 프로브 카드가 납품 물량이 감소하며 매출액과 이익이 급감하였다. 이는 3D MEMS 프로브 카드의 양산에서 발생한 문제로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3D MEMS를 2D MEMS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메모리 시장을 넘어 비메모리 시장 공략 시작!

동사는 NAND 2D MEMS 프로브 카드 양산을 위해 본딩 머신 20대를 추가하였다. 해당 장비는 월 60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1억원 내외의 판가를 고려하면 20대 풀가동시 연간 720억원 규모를 대응할 수 있다. 현재 수율은 70% 정도 수준으로 상반기까지 수율을 끌어올리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물량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회복을 가정하여 올해 매출액 470억원과 영업이익 56억원을 추정한다. 하반기에 주목할 점은 품목 확대를 통한 비메모리 시장 진출이다. 기존 메모리 시장에 머물렀던 동사의 전방 시장은 성장의 한계가 있었다. 최근 통신칩 퀵 테스트를 진행 중으로 이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쌓는다면 메모리 시장을 넘어 비메모리 시장으로의 진출이 가능해진다. 빠르면 하반기 해당 제품군의 매출이 일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별도)

(억원, %, 배)

결산(12월)	2019	2020	2021	2022	2023F
매출액	367	510	605	382	470
영업이익	-28	49	102	-52	56
영업이익률	-7.5	9.7	16.9	-13.7	12
세전이익	-32	47	94	-52	54
지배주주순이익	-46	64	79	-39	52
PER	N/A	11.1	12.2	N/A	16.6
PBR	1.3	1.5	1.7	0.9	0.9

자료:FS리서치, 텔레그램 - <https://t.me/FSResearch> 홈페이지- <http://www.fsresearch.co.kr/>

올해는환골탈퇴의 원년

동사는 올해 많은 것이 바뀌었고 바뀔 것이다. NAND 테스트 프로브카드 생산방식을 2D MEMS로 변경할 뿐만 아니라 사명 변경(4월 26일부터 피엠티로 거래소 반영), 대표이사 변경, 본점 소재지 변경까지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다. 23년 7월에는 본사 인력뿐만 아니라 핀공장을 아산 공장으로 이전할 것이며 이에 따라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아산공장에서 기존 제품뿐만 아니라 3,000억원 규모의 통신칩을 대상으로한 비메모리 소켓, DRAM 테스트로의 사업 영역 확장 등을 꾀하고 있다. 품질 문제 해결만으로 과거 매출액 600억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고 지연된 P3 공장 장비가 도입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프로브카드 신규 물량 역시 증가할 것이다. 대주주 프로텍의 꾸준한 지분 매입도 주목할만하다. 20년 7월 신규 17.3%의 지분 공시 이후로 계속해서 장내매수를 하면서 작년말 기준 41.7%까지 지분을 확대하였다. 50% 미만의 지분율이지만 실질지배력 보유의 이유로 22년부터 연결실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 후공정에서 디스펜서 장비에 한정되었던 프로텍이 사업 영역 확장의 일환으로 동사를 선택한 것이고 검사장비를 무상으로 제공 받는 등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 Compliance Note

- 동 자료는 투자에 대한 참고자료일뿐,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시에 FS리서치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습니다.
 - 동 자료에 언급된 내용은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지만, 모든 내용이 100% 정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분석대상 기업의 발행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